

기고

김덕형 장성경찰서 정보보안과



코로나19 확산 속 개장 앞둔 해수욕장 안전전반 살펴야

최근 지구 온난화 등 영향으로 벌써 뜨거운 피악별이 내리쬐는 무더위가 찾아오면서 강과 들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고 여기에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조되고 있는 요즘. 나무 그늘 아래서 텐트를 치고 여름을 나기에는 여름바다가 적격일 것이다.

때 이른 무더위를 날리기 위해 해수욕을 즐기려는 피서객이 증가하면서 전국 각지의 해수욕장들이 잇따라 개장을 앞두고 있지만 벌써 일부 대형 해수욕장에는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다고 한다.

여기에 최근에는 해수욕장 개장 여부와 관계없이 사계절 내내 해수욕장을 찾는 사람도 꾸준한 추세이다.

정작 문제는 무더운 날씨에 아직 개장도 하지 않았지만 일부 해

수욕장에는 벌써 찾는 사람이 꾸준히 늘고 있다는 점이다.

아직 정식 개장전이다보니 피서객을 통제하는 안전펜스나 수상안전요원,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도할 인력이 배치되어 있을리 만무하다.

피서객들의 안전과 감염병 예방을 책임지는 수상안전요원과 거리두기 지도인력이 없는 상태에서 해수욕장의 물놀이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야말로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게 된다.

장마철이지만 무더위가 심한 요즘은 물론 곧 있을 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아 수많은 피서객이 해수욕장을 찾을 것이고 이에 따라 피서객들의 안전사고로 각종 사건사고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아직본격적인 피서철이 아니기

에 물놀이 해수욕객이 없을 것이라는 선부른 판단은 금물이다.

더욱이, 전국 유명 해수욕장에 비해 지역 단위 소규모의 해수욕장은 가족, 친구모임 등 소규모 단위로 오붓하게 즐기려는 피서객들이 많이 찾는 곳이지만 안전사각지대로 전락할 우려가 높아 더욱 주의가 요구된다.

코로나19가 좀처럼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올해는 더욱이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에

인력과 시설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보니 주요 대규모 유명 해수욕장 위주로 관리 되는 측면이 있어 잘 알려지지 않는 소규모 해수욕장엔 수상구조요원 및 거리두기 지도요원 배치가 힘들 수 있다.

비록 개장 전일지라도 아직 안전요원이 배치되지 않은 해수욕

장을 찾는 피서객들을 위한 안전요원 배치와 더불어 해수욕장 내 방역물품 비치 및 인력배치 등 사회적 거리두기 안전망 구축이 시급하다.

또한, 해수욕장에 배치된 수상안전요원과 사회적 거리두기 지도요원 숫자도 올해는 대폭 늘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행정당국에서도 예산과 인력적 문제로 수상안전요원 배치와 감염예방 및 방역을 위해 드넓은 해수욕장에서 수천명의 피서객의 안전을 관리하기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현재의 여러 어려운 여건속에서는 관련 기관과 단체의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현실에 처해 있지만 피서객들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대책 마련 또한 허술해서는 안될 것이다.

피서객 또한 여름철 물놀이 안전에 있어 한 순간의 방심도 허용해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명심해 스스로도 안전과 감염예방에 유의해야 한다.

올해 여름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과 주의를 덧붙여 코로나19 대규모 유행 확산 방지에 우리 모두 노력해야 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社 說

세계가 함께 확산 방지에 나서야

국내 코로나19 확진환자 발생 빈도가 심상치 않다. 여름이 오면 감염 추세가 진정될 것이라는 기대는 물거품이 됐다. 오히려 급증하는 확진자 수를 감안하면 올 하반기에 다시 대규모 유행이 올 수도 있다.

국제통계사이트인 월드오미터에 따르면 28일 전 세계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숫자가 1천만 명을 넘어섰다. 중국 우한발 폐렴 발생 사실이 세계보건기구(WHO)에 처음 보고된 지 불과 6개월 만이다. 누적 확진자 수는 미국, 브라질, 러시아, 인도, 영국 순이다.

우리나라는 적극적인 대처로 아직까지 버티내고 있지만 결코 안심할 단계가 아니다. 28일 0시 기준 하루 신규 확진자가 또 다시 60명을 넘어섰다. 지난 20일 67명을 기록한 이후 8일 만이다. '생활속 거리두기' 복귀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선인 일일 신규 확진자 '50명 선'을 훌쩍 뛰어넘었다. 환자가 지속해서 나오면서 일정한 공식도 생겼다. 방문판매업체, 요양시설, 콜센터, 교회 등 다중이 모이는 곳이 코로나19의 숙주로 활용된다

는 사실이다.

너무나 당연한 결론이지만, 선제적 방어가 말처럼 쉽지 않다. 경제행위와 종교활동, 의료 지원 등 꼭 필요한 것이다보니 예방지원에서 섰다온 하기 어려운 현실이 있다. 해외유입 감염 사례도 만만치 않다. 40~60명대의 신규환자가 발생할 때면 20명 안팎의 확진자는 어김없이 해외발 감염으로 파악되고 있다. 국제사회에서 섬처럼 살기를 각오하지 않는 한 불가피하게 감수해야 하는 현상이다.

코로나 19 백신과 치료제의 개발은 글로벌 제약회사를 중심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각국 정부도 민간의 이런 노력에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그러나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는 전망이다. 그렇다면 싹들 쏜들 우리는 코로나19 바이러스와 한동안 같이 살아야 한다. 이런 상황을 피할 수 없다면 슬기로운 코로나19 생활을 위한 국가 단위, 더 나아가 국제적 약속이 필요하다. 현재 가장 많은 확진자를 기록하는 미국부터 정신을 차려야 한다.



독자투고

E-mail : ihonam@naver.com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장마철 주의해야 할 안전사고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올 장마가 24일부터 시작된다고 한다.

장마철이면 자주 발생하는 안전사고 유형들을 파악하여 대비하는 지혜를 가져야겠다.

첫째, 장마철 교통사고이다. 앞차와의 안전거리는 평소보다 50%이상 길게 유지하고 감속 운행하며 브레이크는 여러 번 나누어 밟으며 비가 올 때에는 낮에도 어두우므로 전조등을 켜도록 한다.

보행자 안전을 위해 주택가 등 생활도로는 30km/h 이하로 서행운전을 한다. 특히, 학교주변 차량 운행 시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

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비가 오면 운전자는 차에 흐르는 빗물로 인해 시야가 흐려질 수 있고 우산을 쓴 어린이들은 우산에 가려 주변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된다.

또한 우산을 쓰지 않은 아이들은 비를 피해 빨리 건너기 위해 갑작스럽게 도로를 횡단하기도 한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운전자는 운행 전 와이퍼 등 차량 점검을 철저히 하고 학교주변 서행 및 어린이들은 빨간 신호등이라는 인식이 있어야 하겠다.

둘째, 장마철 산악사고이다. 스며든 빗물로 지반이 약화되어 산

사태와 낙석의 위험이 높다.

벼랑 끝이나 절개지, 비탈진 곳의 바위 등은 무너져 내리기 쉬우니 반드시 우회해야 한다.

또한 비에 젖어 노출된 나무뿌리 등은 미끄러지기 쉬우니 주의하고, 큰 비가 내린 후 며칠 동안은 산행을 금하는 것이 안전하다.

셋째, 화재발생사고이다.

여름철은 고온다습하고 장마기간 동안 비가 많이 내리기 때문에 다른 계절에 비하여 화재가 일어날 확률은 낮지만 냉방을 위하여 에어컨이나 선풍기 등 전기제품의 사용이 급증함에 따라 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부주의나 무관심 또는 제품의 노후화 및 불량으로 화재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여름철은 잠자리에 모기향을 피워 놓고 자다가 모기향불이 주위의 가연물에 옮겨 붙어 화재가 발생하고 있으니 특히 주의해야 한다.

이밖에도 주의해야 할 안전사고가 많이 있으므로 미리 알고 대비해야 한다.

어른들의 편의주의로 학교 주변 아무렇게나 주·정차된 차량에 의해 운전자와 어린이의 시야를 가려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것과 사고발생 시 소방차 등 긴급차량이 빨리 도착할 수 있도록 학교주변이나 주택가 이면도로, 아파트, 사람들이 붐비는 유원지 등에 소방통로 확보가 필요하므로 올바른 주·정차 질서를 부탁드린다.

한성근/보성119안전센터 소방위

생활정보전화

- ▲ 이주여성 긴급전화 1577-1366
- ▲ 응급질병상담 1399
- ▲ 미아·가출인 신고 182
- ▲ 여성 긴급전화 1366
- ▲ 청소년 상담 지원센터 1388
- ▲ 아동보호전문기관 1577-1391
- ▲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 ▲ 응급의료센터 1399

긴급전화

- ▲ 기상예보 131
- ▲ 법률구조상담 132
- ▲ 인광 알콜류 상담센터 222-5666
- ▲ 광주 남성의 전화 673-9001
- ▲ 광주 여성의 전화 363-7739
- ▲ 수도 고장신고 121
- ▲ 전기고장 신고 123
- ▲ 가스사고 신고 383-0019

등록번호 광주기 0021 (일간)

호남신문

대표전화 (062) 229-6000
광고국 (062) 224-5800
기자제보 (062) 971-7400
팩스 (062) 222-5547

회 장·발행인·편집인 김 평 호
편집국장 직무대리 서 선 옥

본 사 :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
서울 취재 본부 :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로62가길 16-1
Tel (02) 2238-0003

인터넷 호남신문 www.i-honam.com

1946년 4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 쇄 (주)남도프린테크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호남신문 후원 및 회원제 시행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저희가 개척하겠습니다. 지금 보다 건전해질 수만 있다면 어렵지만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이나 간섭에서도 자유롭기 위해서라면 당장의 손익에 급급해 하지 않겠습니다.

호남신문이 후원 및 회원제를 시행합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원 여러분들의 피와땀이 배인 후원금을 소중히 접수하겠습니다. 후원금으로 광고의 일부를 대체해 광고주의 유무형 압력 등 편집권 침해로부터 탈피해 자유로운 제작이 이뤄질 수도 있도록 할 것입니다. 특히 자본권력의 횡포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독자생존 체제를 구축해 나간다는 차원에서 작은 변화를 시작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및 회원제의 시행으로 애곡되지 않은 정론을 펼치는데 지역언론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합니다.

전국 일간지 최초로 복지면을 할애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향상에 힘쓰고 있는 호남신문은 후원회원제를 통해 보다 더 굳건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겠습니까마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 보면 작은 내가 모여서 강을 이루듯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점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회원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차차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호남신문의 작지만 큰 변화의 몸부림에 시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